

(한국의 미)

한옥과 구들

김동정 수필가 · 여행작가

따뜻함이 그리운 계절이다. 이 겨울, 장작불 지핀 한옥의 구들방에서 며칠 묵고 싶다. 며칠 묵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 박박한 일상에서 시간을 떼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안다. 어쨌거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에 주목해주시기 바란다. 그렇다고 뭐 거창한 게 아니다. 구들방과 창호지, 마루와 마당이 있는 한옥에 얽힌 얘기다. 더 넓게는 잊혀져 가는 우리 문화에 대한 얘기라고 보면 된다. 문명이 모든 걸 바꿔놓고 있는 오늘날 한옥은 그 존재 가치가 점점 없어져가고 있다. 아파트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전통이 짙게 배어있는 고가들이 의외로 많다.

서양식 주택의 한 귀퉁이에 오롯이 들어앉은 한옥 한 채. 그 모습이 단정하고 미려하다. 한옥은 한국인의 체질에 가장 알맞은 가옥 형태다. 특히 마루와 구들이 접목된 한옥만의 독특한 구조는 치밀한 과학과 은근한 매력이 숨겨져 있다. 자연을 거스른 한옥은 웬지 불편해 보인다. 한옥을 떠받친 대들보는 못하나 쓰지 않고도 튼튼하고 날렵하다. 대들보만으로 좋은 집인지 아닌지를 알아본 옛 어른들의 안목은 오늘날 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선이 아름다운 처마는 대들보와 함께 한옥의 중심 역할을 한다. 깊은 처마는 여름날 햇볕을 막아주고, 겨울철엔 별이 방안에 고루 스며들도록 해 추위를 막아준다. 그러나 하나 돌씩 사라져가고 있는 한옥은 우리 것에 대한 애착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일찍이 한옥을 연구하고 짓는데 평생을 바쳐온 신영훈 선생은 한옥에도 인격이 있다고 했다. 한옥을 지을 때 기둥, 처마, 지붕, 벽, 마루, 난간, 문, 담장, 창, 덧돌, 대문, 마당 등이 우리 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마루나 옆방으로 통하는 문지방의 높이가 어깨 넓이와 같아야 제대로 된 집이라고 보았다.

한옥 하면 구들방이 자연스레 연상된다. 나의 어린 시절 한 토막. 지금은 고향을 떠나 객지에 살고 있지만 해마다 겨울이 오면 나도 모르게 옛 시절이 떠오른다. 구들방 화롯가에 둘러앉아 고구마를 구워먹던 기억하며 부엌 아궁이에 솔가지를 쭈서 넣고 불을 때던 때가 몽글몽글 살아나는 것이다. 한겨울, 허리쯤 내린 눈은 마을길을 송두리째 막아버려 길을 내는데 한 나절이 꼬박 걸렸다. 겨울 추억이 어디 이것뿐이라. 또래 친구들과 눈길을 헤치며

토끼를 쫓던 기억도 잊을 수 없다. 하얀 눈이 난분분 내리던 어느 겨울날 밤, 뜨끈뜨끈한 구들방에 모여 앉아 아버지의 구수한 입담을 듣노라면 바깥 추위는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 당시만 해도 겨울 추위는 대단해서 영하 15-20도를 오르내리기 일쑤였다. 처마 끝의 고드름은 며칠이고 달려 있었고, 한번 내린 눈은 녹지 않아 겨울 내내 쌓여있기도 했다. 1970년



△ 전주공예품전시장에서 민속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대, 나의 겨울은 매번 그렇게 지나갔다. 벌써 3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시절을 돌아보노라니 다만 허허로울 뿐이다.

전통 한옥의 구들방은 '아랫목 문화'에서 기인하였다. 구들 난방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난방방법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집에서는 스위치만 누르면 금세 온기가 도는 가스보일러를 쓴다. 그러다 보니 아랫목과 윗목이 따로 없고 보일러를 꺼두면 썰렁한 기운만 감돈다. 물론 가스(기름) 보일러의 유용성을 인정하지만 아쉬운 점이 더 많다. 침대 생활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구들은 어색하고 불편하다. 하지만 구들방에서 오래 생활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점을 만날 수 있다. 구들 난방은 요즘처럼 유가가 치솟는 시기에 적절한 난방방법이 아닐 수 없다. 타고남은 재는 거름으로 쓸 수 있고 가마솥에 밥을 짓고 물도 데울 수 있다. 여기에 고구마여 밤 등을 구워먹기도 하고 후끈해진 방안 공기로 빨래도 말리고 천장에 메주를 매달기도 했다. 구들은 원래 '구운 돌'에서 생겨난 이름으로 온돌보다 더 오래된 순 우리말이다. 아픈 사람이나 일없이 노는 사람을 일러 '구들장 신세'라 표현하는 것도 구들이 그만큼 편하다는 의미일 게다. 구들은 불이 타는 아궁이, 연기가 지나가는 고래, 연기가 밖으로 나가는 구새(굴뚝의 다른 이름)로 나누어져 있다. 아궁이에서 가까운 방바닥은 유난히 따뜻해서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자연스레 그쪽으로 가게 된다. 언 손과 발을 이불 속에 넣고 조금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졸음이 몰려왔던 기억이러니. 구들은 이처럼 우리 조상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민족문화의 원천이다. 오늘날 거개의 사람들은 아파트나 빌라, 또는 단독주택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고살길을 둔 한옥은 색다른 정취로 다가올 게 분명하다. 처마 선이 보여주는 부드러운 돌담과 흙담이 주는 투박함, 그리고 온돌방과 한지문이 있고 장독대와 아궁이, 마루를 볼 수 있는 한옥이야말로 발 빠른 이 시대의 소중한 주거 공간이다. 다소곳한 한옥 구들방에서 하룻밤 묵다 보면 몸과 마음에 쌓인 걱정거리가 말끔히 지워질 것이다

♣ 한옥체험-전주 한옥마을

천년 고도(古都)의 숨결이 녹아 있는 온고를 전주. 요즘 들어 전주가 이색 체험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주 시가지 동남부(완산구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자리잡은 한옥마을이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문화특구로 지정되기도 한 전주의 한옥촌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취락을 이뤄 조선 중기 이후 전주 최씨와 이씨, 수원 백씨 같은 명문가들이 뿌리내리고 살던

곳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의 한옥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면서 새로 짓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조와 담, 대문 등이 많이 바뀌었다. 1977년에는 이 일대를 한옥보존지구로 지정, 기와집 말고는 다른 건물을 못 짓게 했다. 늦게나마 한옥의 보존가치에 눈을 뜬 당국이 내린 조치이다.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기도 했지만 전통가옥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일부 뜻있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 대로 명맥을 유지해올 수 있었다. 몇몇 한옥은 3백년 긴 세월 동안에도 굴하지 않고 본래의 번듯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 옛 것의 가치를 새삼 돌아보게 해준다. 한옥마을에는 지금도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 걷는 맛과 체험의 즐거움이 있는 한옥마을에는 현재 800여 채의 전통가옥이 모여 있다. 풍남동과 교동에 들어선 한옥마을은 사방이 5백여 미터밖에 안 돼, 굽이진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도 한나절이면 둘러볼 수 있다. 구들방이 갖춰진 한옥생활체험관, 조선시대 양반집을 연상케 하는 곳으로 안채(端影院)와 사랑채(世化館) 그리고 행랑채(多慶樓)와 안마당, 사랑마당이 갖추어진 전통한옥이다. 세화관 선비방에서는 사랑채의 뜻을 살려 한문강좌를 비롯해 붓과 벼루, 한지를 비치하여 선비들이 즐겼던 시서화(詩書畵)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채에서는 단채로 온 투숙객이나 학생들에게 예절교육, 다도(茶道) 등을 가르쳐준다. 또한 다경루에서는 거문고, 가야금, 대금 등의 전통 악기 공연과 선(禪)과 다례(茶禮)를 배우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한옥체험관에 들어서면 시골집에 온 것처럼 푸근하다.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가 가지런하고 한지문을 밀고 방안으로 들어가면 문갑경대, 사방탁자, 병풍 등이 옛 향취를 물씬 풍긴다.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앉아 여독을 풀라치면 이곳이 전주 시내 한복판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안온하다. 하룻밤 묵는데 2인 기준으로 5만·10만원. 숙박 요금에 아침 식사가 포함된다. 대청마루에서 먹는 아침밥은 그 옛날 고향집을 떠올리게 한다. 유기그릇에 담아 내온 구수한 찌개와 반찬 맛은 잃었던 식욕을 되찾게 해준다. 주말에 갈 경우 2주 전에 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다. 예약 시 30%의 예약금을 입금해야 한다. 문의(www.jjhanok.com, 063-287-6300). 이웃해 있는 양사재(063-282-4959)에서도 한옥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전주향교의 유생들이 머물며 공부하던 곳을 전통 한옥으로 꾸며놓았다. 6개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2인 1실 기준 5만원을 받는다. 이밖에 10개의 객실이 있는 동락원(063-287-2040)과 2개의 객실(아침식사 포함)이 있는 일반 한옥민박(063-288-1695)에서도 묵을 만하다. 